

Q3

산불 피해지에 심을 나무 종류를 선택하는 기준이 있나요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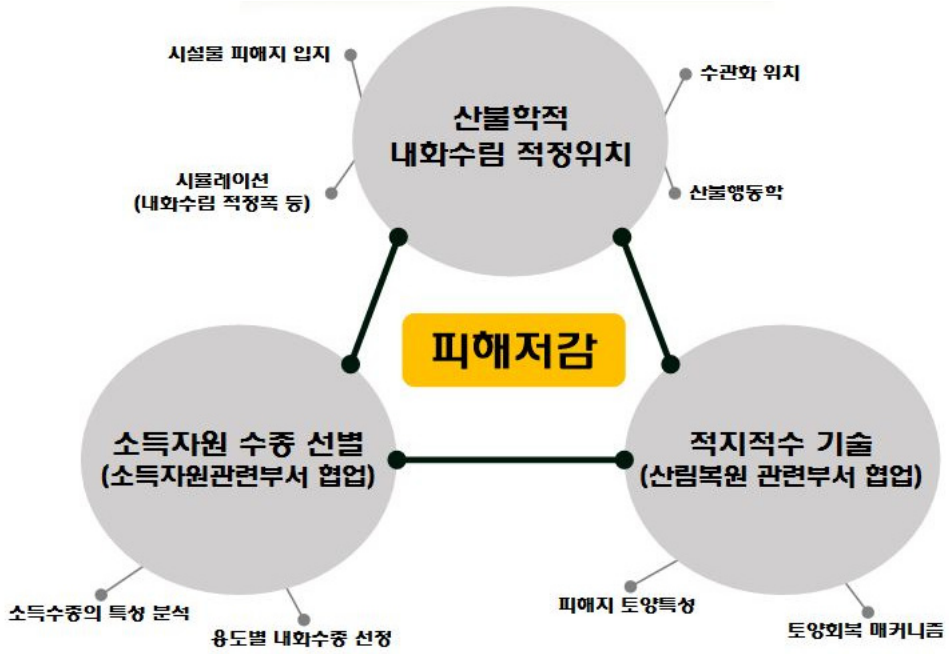
A

산불피해지에 심을 수종을 선택할 때에는 크게 3가지를 고려해야 합니다. 자연 환경과 지역주민의 의견, 산불로부터의 피해 예방입니다.

첫 번째 자연환경은 적지 적수를 의미하는데요. 해당 지역에서 생존할 수 있고 잘 자랄 수 있는 수종을 심어야 한다는 뜻입니다. 영동 해안지역은 봄철에 건조하고 바람이 강하게 부는 특성을 고려해야 합니다.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연구를 통해 지역별 추천 수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. 이러한 정보는 산림정보 다드림 사이트(gis.kofpi.or.kr)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두 번째는 지역주민과 산주의 의견을 고려해야 합니다. 소나무가 산불에 취약하지만 소나무숲에서 자라는 송이는 주요 소득원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다시 심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

마지막으로는 마을과 시설을 산불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수종을 선택해야 합니다. 마을 주변에는 활엽수 위주로 식재하여 지표화로 유도하고, 소나무는 멀리 떨어진 곳에 심는 것이 피해 예방 차원에서는 중요합니다. 물론 심고자 하는 수종의 묘목이 공급될 수 있는지도 중요한 항목입니다.



최적 내화수림 조성기술